

## 지금은 “종교전쟁”? 깨어 “기도” 할 때!



(왼쪽부터)전북 익산 국가식품크러스트 단지 조감도, IS(이슬람) 거점 확장도©위키피아, 시리아 난민 모습 ©Christian Aid.

아브디니 목사 가족들의 모습 ©ACLJ 제공

### 테러도 난민도 없어질 수 있길 하나님 나라 확장만이 정답

최근 불거진 시리아 난민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많은 난민들이 자국 일탈현상을 이어간지 오래다. 다만, ‘하나님께 모두 말할거야’라며 무정한 세상을 노크하던 터키 해변가 어린 아이의 익사체로 인해 좀 더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다시말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과 다수의 IS(이슬람) 반군 단체들 간의 충돌 내전은 2011년 이래 시리아 난

민 행렬을 끝없이 늘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전의 흑독함은 760만여 명에 이르는 시리아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 끝모를 망망대해를 기약도 없이 표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안위와 이익 때문에 난민 수용을 꺼리고 있다. 독일만이 최대 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알카에다 지도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IS에 “미국 공격 위해 연합하자”며 “서구 국가들은 ‘십자군 연합국들’이다. 공격에 나서자”고 강권하고 있다.

인디아의 뭄바이에서는 힌두교도들이 생명을 담보로 개종할 것을 위협하며 크리스천들을 버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편, 한국내의 급속한 무슬림의 증가는 전북 익산에 5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국가식품크러스트 단지 내 이슬람 할랄식품 테마단지 조성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교계관계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모든 사회 혼돈의 배후에는 종교 간 갈등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깨어 기도해야 할 부분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몫이다. 이영인 기자

### 아브디니 목사 이란에 3년째 구금 중 아내는 남편과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위해 21일 금식기도

이란 교도소에 구금된 이란계 미국인 사예드 아브디니 목사의 아내인 나흐메 아브디니가, 오는 26일까지 21일간의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이날은 남편 목사가 이란에서 구금된 지 3년 되는 날이다. 그녀는 전 세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금식기도를 할 것이라며, 많은 기독교인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사예드 아브디니 목사는 이란 정

부에 의해 간첩 등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이란 교도소에서 약 3년을 보내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고 있다. 아브디니 목사는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은 물론 교도관에 의한 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상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해리 기자

## “대신·백석 통합...대형교단으로 부상”

### 7천여교회, 국내3대 대형교단돼 교단명 대신, 총회장 장종현 목사 고려·고신도 대통합 역사 이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과 백석, 양 교단이 마침내 통합하며 약 7천여 교회의 국내 3대 대형교단으로 등장했다. 통합 조건은 ▲교단 이름 ‘대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백석대 대신신학대학원으로 할 것 ▲양 교단 총대수는 5:5 ▲역사는 양교

단 역사를 사용 등이며, 백석 교단의 ‘통 큰 양보’가 큰 역할을 했다. 양 교단은 1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통합총회 ‘대신’으로 개최하며 ‘통합선언’을 했다. 통합의 이유는 단순히 교단의 생존과 확장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분열 극복과 다시 한 번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총회장으로 추대된 장종현 목사는 “오늘 대신과 백석이 교단통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게 된 것과 통합총회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훗날 역사는 분열로 얼룩진 장로교회 안에서 모든 기독교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 되기 위해 교단 통합을 결정한 우리 대신과 백석 교단에 대해 귀중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대신과 백석의 통합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됐었다. [관련기사 10, 11면에 계속]

## “선한목자교회도 재산포기”

### 630만 달러 포기 후 더 좋은 장소로 이전 법정싸움 원치않아

선한목자교회가 현재 사용 중인 630만 달러 상당의 로렌하이츠 예배당을 포기하고 치노힐스로 새 건물 구입해 이전한다. 이 교회는 PCUSA(미국장로교)에 소속돼 있었으나 교단이 동성결혼 정책을 합법화하자 이를 반대해 교단을 탈퇴하고 ECO(복음주의연

약장교회)에 가입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소속된 샌가브리엘노회의 은혜로운 결별 규정(GDP)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탈퇴 절차를 밟았고 노회와의 합의 하에 2014년 3월 공동의회를 열어 교인 91%의 지지를 받으며 탈퇴가 확정됐다. 그러나 노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GDP까지 개정하면서 교단 탈퇴가 부류된 상태였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ASE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IVY DREAM Shelby Kwon Director  
 이정석 박사님 (College Applications)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 토렌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USA Tel: (949) 329-8222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Email: shelby.moon65@gmail.com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www.MyIvydream.com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 남가주한인목사회 “라흥채 목사 초청 세미나” 개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가 라흥채 목사를 초청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주제의 세미나를 세계가가페선교교회에서 14일 개최했다.

라 목사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테네코 석유 회사에서 근무하다 휴스턴신학교, 베다니신학교 등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 1996년 뉴욕제자교회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담임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한 주제 아래 각종 도표를 통해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엄규서 목사(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강부웅 목사(부회장)가 기도하고 김재권 장로(이사장)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봉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맨 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로부터)강사 라흥채 목사, 백지영 목사회장

라흥채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심진구 목사(부회장)가 헌금기도, 김영증(증경회장) 목사가 축도했다. 김준형 기자

# 노숙자들에게 “예수사랑” 전해요



베레카봉사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산타애나 노숙촌에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다. (왼쪽 맨 앞쪽이) 회장 최명균 목사

베레카홀리스봉사회(회장 최명균 목사)가 12일 토요일 산타애나 노숙자촌을 찾아 손수 준비해 간 음식을 나눠주며 말씀을 전했다.

이 봉사회는 지난 8년 동안 소리 소문없이 소외된 이웃들, 특히 노숙자 형제자매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 사랑 나눔’ 실천을 계속해 오고 있다. 베레카홀리스봉사회는 매주 토요일 산타애나 노숙자현장을 찾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아침 8시에 어김없이 그들을 찾아 음식을 나누

고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정례적으로 이어온 이 노숙자촌 섬김에는 항상 약 600-700여 명의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곳의 노숙자들은 거의 대부분 남미나 중동 출신의 노숙자들이 많다.

이날 베레카팀은 특별히 터키 출신 노숙자였던 폴라 자매가 자원봉사자로 합류하여 현장을 섬겼다. 그 자매는 고향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녀의 친척들과 동생들의 연

락처를 주었다. 그래서 그 연락처를 터키에 있는 한국선교사들에게 전달하는 터키 현지 선교와의 가교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장 최 목사는 “이렇게 삶에 지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회원분들께도 감사한다”며 “우리는 노숙자 선교 현장을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특별히 무슬림 영혼들의 선교도 감당하고 있다. 마지막 때의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고 전했다.

베레카팀봉사회는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찬양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섬김 후, 다시 부에나파크 소재 웨스턴 파크에서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성경공부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베레카봉사회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단계로 현장 섬김이나 물질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는 최명균 목사(714-392-1916), 피터 최(562-682-0777)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 “선한목자교회도 재산포기”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담임목사

리 싸우는 것이니 우리가 건물을 포기한다”고 했다.

이 교회는 치노힐스에 미국웨슬리안교단이 소유한 2천만 달러 이상의 건물을 1천30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했다.

과거 한인교회인 크로스로드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이다. 4에이커 부지 위에 4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이며 6년 전 건축했다. 한번에 5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당이 있으며 16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 목사는 “당장 1천 명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당회는 ‘교회가 세상에서 싸울 수 없다’고 결정하고 현 건물을 포기하기로 한 후 학교나 창고 등 여러 장소를 백방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선한목자교회는 에스 크로를 열고 구체적인 구입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리고 오는 20일 주일 성도들의 뜻을 묻는 공동의회를 연다.

고 목사는 “13일 새 건물을 방문하는 오픈하우스 행사에 교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교인들의 지지가 높다”고 했다.

한편, 최근 한인교회들 중에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교회가 늘고 있다.

세크라멘토노회의 시온장로교회도 300만 달러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또 같은 노회에 속한 수도한인장로교회도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전제 위에서 교단 탈퇴를 논의 중이다.

선한목자교회는 캘리포니아 내 PCUSA 소속 한인교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적 교회였고 고태형 목사 역시 한인총회장을 역임했던 목회자이기에 이번 결정은 다른 한인교회들에게도 적지 않은 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형 기자

# 630만 달러 포기 후 더 좋은 장소로 이전 범정부 원치않아

[1면으로부터 계속] 고태형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1년 뒤 재차 공동의회를 열고 교인 95%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선언하자 샌가브리엘노회와 교단 잔류를 원하는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돌려달라”며 지난 7월 9일 고 목사와 선한목자교회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고소했다.

지난 13일 주일예배에서 고 목사는 “교회 재산을 포기하고 새 건물로 이전한다”는 당회의 결정을 교인들에게 공포했다.

고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교단을 떠나는 우리와 교단에 남겠다는 3,400여 명 교우들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대신) 128만 달러를 헌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다른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15일 인터뷰에서 “그 동안 지켜오던 건물을 왜 포기하느냐”는 질문에 고 목사는 “많은 분들의 오해처럼 건물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도 잘 하고 교단에 남으려는 소수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범정부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끼

# 남가주 웨슬리안 교회들 “찬양”으로 하나돼



이번 찬양제에 처음 참여하는 남가주벨엘교회 성가대와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지역 웨슬리안 교회들의 대표적인 행사인 연합찬양제가 오는 27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는 27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제 9회를 맞이한 올해 행사에는 구세군나성교회, 나사렛연합찬양대, 나성동산교회, 남가주벨엘교회,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셋별선교회, 월서연합감리교회, 유니온교회, 한빛성결교회, LA연합감리교회 등 웨슬리안 전통을 따르는 구세군, 나사렛교단, 연합감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미주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소속 10개 교회들이 참석한다.

이 행사는 미주웨슬리안연합회(회장 김성대 목사)가 주최하고 크리스천유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가 주관한다. 문의: 213-383-2345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 나성언약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교회

일시 : 2015년 9월 20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 나성언약교회 예배당



초대목사  
고 김학철 목사  
1965~1981



원로목사  
안정남 목사  
1981~2008



담임목사  
이순환 목사  
2009~ 현재

- 교육목사 : 인치원, Oliver Schulz
- 원로장로 : 이기환
- 사무장로 : 박용석, 박희도, 이경전

**나성언약교회**  
Korean Covenant Church of Los Angeles  
5260 Lincoln Ave, LA CA 90042  
Tel: (323)349-0691, (213)505-3838

- 1965. 9. 19 교회 창립 / 베다니 교회 412 W. Slauson Ave. LA.
- 1980. 1. 27 교회당 이전 / 2226 Fargo St. LA CA 90039
- 1981. 11. 1 교회이름 변경 / 나성성약교회
- 1988. 7. 31 교회이름 변경 / 나성언약교회
- 1999. 3. 21 교회당 이전 / 5260 Lincoln Ave. LA CA 90042



수십년 전 영어 월간지에서 가슴 깊이 음각되는 명언을 만난 일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남들이 자신에게 던진 벽돌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지을 든든한 기초를 쌓아가는 사람이다.' 살롬장애인선교회(2869 W. Pico Bl., LA) 대표 박모세 목사는 바로 그런 부류의 목회자다. 그는 인생이 자기에게 준 극한 고난을 좌절이 아닌 약자들을 향한 섬김의 재료로 승화시켰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6>

살롬장애인선교회

대표 박 모 세 목사



살롬장애인선교회가 해외에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의료보조기구를 보내기 위해 매년 여름 개최하는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의 모습.

# 소외된 장애인들의 벗 되어 주님 마음 나눈다

무역회사 중역으로 잘나가던 박모세 목사는 1989년 한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두 딸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부인 박성칠 사모는 사지마비가 되는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 백석대 신대원과 남가주의 마스터스 신대원을 졸업한 뒤 1999년 LA에 살롬장애인선교회를 설립했다.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다.

"다이빙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었으나 극복하자, 베스트셀러 작가, 장애인 권익옹호 운동가로 변신한 유명 사역자 자니 에릭슨의 소개로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장애인 특수목회를 공부하러 43세의 나

이로요. 3년만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현재 사역의 51%를 한다"고 단언하는 그는 선교회의 모토를 '찾아내어 섬기자'(Search and Serve)로 정했다. 그리고는 소외당한 채 숨어 지내는 지역사회 장애인 및 가족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밖으로 안 나오거나 못 나옵니다. 특히 한인들은 그같은 경향이 더 심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살롬은 350여 장애인 가정을 직,간접적으로 섬긴다. 오랜 기도 끝에 2012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체 건물인 장애인센터(약

7,000스퀘어피트)를 주 5일 오픈하고 재활교육,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이면 어김없이 장애인 및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린다. 예배 후에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돌아가며 제공하는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성경퀴즈대회도 연다.

또 학생이 있는 장애인 가정엔 장학금을 수여하고 창립기념 야유회, 가족 수양회 등을 통해 쉼과 재충전을 선사한다.

**교통사고로 두딸 잃고 부인은 사지마비 목회소명 받고 단체 설립 장애인우 섬겨 17년째 '사랑의 휠체어' 보내 해외 선교 기금모금 위해 찬양CD 직접 제작 판매중**

6명의 사역자를 두고 있는 선교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분야는 해외장애인 선교. 미국은 다행히 장애인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들의 삶이 너무도 험난함을 잘 아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 단체 설립 첫해부터 무려 17년째 연 평균 2차례씩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난 15일에는 감격적인 제 31차 발송식을 개최했다.

"요르단 난민촌과 캄보디아, 키리기즈스탄에 있는 약 4,500명의 불우한 장애인들이 이번에 혜택을 받습니다. 요르단과 키리기즈스탄은 현지 선교사님들과 연결해 모슬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선물을 보내는 것이라 더욱 뜻깊지요. 1999년 9월에 자니 에릭슨이 기증한 49대의 휠체어를 처음



살롬장애인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오른쪽)와 부인 박성칠 사모.

해외로 선적한 이래 지금까지 31차례에 걸쳐 휠체어 9,480대와 기타 보장구 4만2,220점을 11개국으로 보내 5만명 이상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여름에 열리는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를 통해 마련된다. 올해 콘서트 무대는 박 목사의 2번째 독

창화로 꾸며졌다. 그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나 전문 독창자의 길은 가기에는 역량이 딸린다고 판단하고 음악을 접은 배경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학식과 훈련을 선교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배설물 같이 여기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저의 성악 경력이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역을 했던 과거 역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에 요긴하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의료장비 구입비용과 운송비 등을 합해 14만 달러다. 박 목사는 "모자라는 2만 달러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와 평안'이라는 타이틀로 제 찬양음반을 제작해 판매중이다. 애창하는 찬송가 9곡과 음악회에서 불렀던 성가 8곡을 담았다"면서 많은 구입을 부탁했다.

"꾸준한 계몽 덕에 장애인들을 대하는 한인들의 태도는 많이 나아졌지만 장애인들이 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모습은 한 인교회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는 "전체의 10% 정도인 발달장애인들만을 중심으로 교회의 장애인 사역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담임목사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며 안타까워했다.

CD구입 문의: 323-731-7724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성경 읽기 운동본부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개원 예배**  
**함께 갑시다**

2015년 9월 26일  
(토) 오전 10시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설 교: 유진소 목사 (ANC 온누리교회 담임)  
기 도: 곽재필 목사 (OC 목사회 회장)  
축 사: 박신욱 목사 (전 미주 복음방송 사장, 스페인 선교사)  
: 윤우경 집사 (OC 평신도 연합회 회장)  
권 면: 박충기 목사 (미주 장신대 학생처장, 엘피스교회 담임)  
격려사: 김기동 목사 (OC 교협회 회장)

문의  
박용일 목사 (714) 726-8887  
이중호 목사 (562) 282-7360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  
대표: 주해홍 목사

www.ezrabiblereading.com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 제85회 정기노회에서 7명이 목사로 안수받았다.

### “KPCA서노회 7명 목사 안수”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 제85회 정기노회에서 7명이 목사로 안수받았다.

10일 오전 9시 나성서남교회(김광철 목사)에서 열린 노회 중 목

사안수식에서는 허원구 목사(부산산성교회)가 ‘조각목의 영광(출 25:23-28)’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전 노회장인 지영환 목사가 권면, 박성규 목사가 축도했다.

이번에 안수받은 이들은 이원복, 이재일, 이한일, 이현노, 유미숙, 정희중, 허성진 목사 등 총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문소현 기자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신규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회장 선출”

**신임 회장 신석환 목사  
신임부회장 박진하 목사**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가 15일 오전10시 에벤에셀교회(담임 최창섭 목사, 이재홍 목사)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신석환 목사, 신임부회장에 박진하 목사를 선출했다. 신석환 목사는 92년과 20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방회장에 선출됐다. 회장 신석환 목사는 현재 부활의새빛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부회장 박진하 목사는 뉴

욕퀸즈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또 이날 정기총회 경건회는 이재홍 목사의 인도로 노기승 목사 기도, 김영환 목사 설교, 이선일 목사 광고, 박마이클 목사 헌금기도 및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전 지방회장)는 ‘약 5:7-1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묵화하면서 옴의 인내를 배워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인터넷 “중국인 신학교육” 길 열려

미드웨스턴 한국어부...아시아부로 격상되고 중국어 신학 교육 시작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현재 전 체 구 중 기 독 교 인 이 최 소 1억 명 이 상으로 추산되는 나라. 전

석사(M.Div.), 신학 석사(M.T.S.), 목회학 박사(D.Min.), 목회교육학 박사(D.Ed.Min.), 철학 박사(Ph.D.) 학위 과정을 100% 한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석사 학위는 100%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나 지리적 장벽이 신학 교육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미드웨스턴의 한국어부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으며 급성장해 현재 340여 명의 한인들이 공부하고 있다.

라일 수가 없다. 박 학장은 “한국어부 학장으로 부임할 때, 마음 속에 10년 동안 품어 왔던 비전을 총장 및 부총장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본인들의 가슴에 가장 잘 와 닿는 모국어로 중국인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 비전은 인터넷의 발전과 한국어부의 성공 덕에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토론티 온라인 수업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박 학장은 “세계 선교의 중심에 있는 중국을 신학 교육으로 섬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우리에게 최초로 전해 준 통로였던 중국을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한국이 이제는 복음으로 도울 때다. 많은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후원과 격려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를 성경적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및 제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키워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치로 1957년 설립된 이 학교는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인 SBC 산하 6대 신학교 중 하나로 규모 면에서는 미국 8대 신학교에 속한다. 이 학교는 북미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HLC-NCA(Higher Learning Commission of the North Central Association)의 인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문의: ks@mbts.edu  
홈페이지: http://www.mbts.edu/academics/koreanstudies/  
김준형 기자

문자들은 향후 10년 내에 기독교 인구가 6천만명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 그러나 이런 경이적인 성장과 규모 이면에서는 신학의 부재 혹은 약화로 인한 혼란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의 박성진 학장은 “중국은 3세대 목회자들이 문화혁명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기에, 신앙은 지켰지만, 신학은 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신학의 부재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단들이 급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올바른 신학 교육이 중국 기독교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강조한다.

중국인을 위한, 중국인에 의한 신학 교육. 박 학장이 10년 전부터 품어온 이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드웨스턴이 중국인 신학 교육을 위해 중국어로 석사 과정을 개설했다. 100% 온라인이다.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만다린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중국인 교수들이 강의한다. 미드웨스턴이 속한 남침례회(SBC)는 지금도 보수적 백인 교단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학교는 한인들을 선교적 동반자로 인식해 5년 전 한국어부를 설립하고 목회학

### OC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초청 추계부흥회



강사 UTD 공동대표 손인식 목사

라는 주제로 손인식 목사를 초청해 추계부흥성회를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25일(금) 오후 7시 30분에는 ‘이 시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힘,’ 26일(토) 오전 5시 30분에는 ‘이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 오후 7시 30분에는 ‘이 시대 성도들이 갈망하는 자유,’ 27일 주일 1,2,3부 예배에서는 ‘이 시대 교회를 회복하는 특성’이란 제목으로 각각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714-893-1652

### 남가주찬양합창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 주최, 본사 및 미주복음방송을 비롯 기독교인들이 후원하는 ‘남가주찬양합창제’가 열린다. 일시: 9월 20일(주일) 오후 7시 장소: 남가주주님의교회 (1747 Nogales St. Rowland Heights, CA 91748) 출연: 남가주살롬교회, 생수의강선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감사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 글로발선교교회, 주님세운교회, LA Contemporary Worship Choir

### 기독일보

편집교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 추계부흥회



손인식 목사  
Peter I. Sohn

- 전)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90년-2013.12.30)
- KCC(Korean Church Coalition)대표간사
- 이민목회연구원장
- UTD-KCC 국제대표

2015년 9월 25일(금)~27일(주)

- 주제: 평범에서 비범으로
- 강사: 손인식 목사

- 25일(금) 저녁 7시 30분 이 시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힘 (벙후 1:5-7)
- 26일(토) 오전 5시 30분 이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 (에 4:12-17)
- 26일(토) 저녁 7시 30분 이 시대 성도들이 갈망하는 자유 (롬 8:1-2)
- 27일(주일) 1, 2, 3부 이 시대 교회를 회복하는 특성 (삼상 17:45-49)



담임목사 남성수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Tel. 714.893.1652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www.kccroc.com



#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다모데전서 4:9-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이제 중년교회로 들어선 성은교회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목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힘써왔습니다. 목자도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들이신 모든 심령들이 육신으로 잘못 살았던 지난날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영적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농어촌교회 지원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인류 복음화의 날을 앞당겨 드리기를 위해 성도와 함께 많이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 1. 신앙의 목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말 행실까지 신앙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를 믿음의 진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당신의 믿음이 달라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6-8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영혼을 지옥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살아 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어야 하고,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수고의 목적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함으로 그 왕국이 확장되게 하는 구령의 성과를 목적으로 힘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상당히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염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염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말한대로 행동하는 생활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게 채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남녀간에 음란 방탕하는 일도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늘나라 좀 더 나은 자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주 기록하고, 경건하며, 절제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에 흡입될 것이 없도록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는 것입니다. 착념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경을 많이 읽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면, 네가 아는 예수님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여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이 세상사는 날 동안에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어야 합니다. 즉,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생활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권세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겸하여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 3. 목자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15절에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즉, 너의 진보는 지금 네 자신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 네 양떼들을 통해서까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필생의 사명의지로 순교적 사명의지를 가지고 구령 성과를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V, 라디오, 인터넷 사이트, 각종 칼럼, 신문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리 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집회하다 보면은 TV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 신앙이 바로 섰다하는 사람도 많고, 신문에서 목사님 설교를 읽고 상당히 회개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 이게 진짜 목회자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네는 샅꾼이고 가짜 목사였다.’라고 회개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켜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하도록,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궁극적 신앙 목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습니다.

이제 성은교회는 43주년을 맞이하여 중년교회로 들어섰습니다. ‘Our duty is world mission’이라고, 우리의 사명은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은교회로 부르셨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우리 성은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많은 성과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제 34회

# 남가주

# 찬양 압상제

- 일시: 2015년 9월 20일 (주일) 7:00pm
- 장소: 남가주 주님의교회  
1747 Nogales St. Rowland Heights, CA 91748
- 출연: 남가주 살롬교회, 생수의강 선교교회, 남가주 주님의교회, 감사한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LA Contemporary Worship Choir, 선한목자장로교회, 글로벌 선교교회, 주님세운교회
- 주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 후원: 미주복음방송 | 기독일보 | 미주크리스천신문 | 크리스천헤럴드 | 크리스천비전신문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5. 제출마감: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이석철 교수의 신앙산책

### 사람의 복



이석철 목사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Your Happiness is Our Priority.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오렌지 카운티의 어느 마켓에 걸려 있던 현수막이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도 사람의 행복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를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사람의 복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복이라는 기본적인 복과 영혼의 복이라는 궁극적인 복과 함께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행복한 삶에는 사람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 ‘인’(人)을 봐도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이다. ‘인간’(人間)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람의 본질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아 가야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고 이러한 인간들 ‘사이’에서의 삶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다.

실로 사람에게서는 사람만이 채워 줄 수 있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주신다. 아담에게는 풍성한 자연계가 마련돼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부족할 것 없어야 할 그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사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사람의 복을 주셨다.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는 사람에게 천운, 지운, 인운이 있다고 말한다. 인운은 ‘사람 복’을 말하며 아무리 천운과 지운을 잘 타고 났어도 마지막 인운에서 그르치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실로 사람은 행복의 주요 원인이다. 사람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언 8장 31절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떤 번역을 보면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삶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니다. ‘삶’이란 글자에서 모음 ‘ㅏ’를 아래

로 늘리면서 밀어내리면 ‘사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삶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세 가지 형태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생물학적 가족인 혈연가족(family), 사회적 가족인 친구들(friends), 그리고 영적 가족인 믿음의 친구들(faith-friends)이다.

이 세 가족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혈연가족일 것이다. 실로 가정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삶의 터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복이다.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주로 가족들로 인한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혈연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사람들인 친구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가족이요 사회적 가족이다.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잠 18:24)고, 또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잠 27:17)고 말이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자와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큰 복이다. 배우자 외에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더 큰 복이다. 친구가 많은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가까운 친구는 한 두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내 주변에는 은퇴한 이후에 그런 친구들과 가까이 어울려 사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참으로 현명한 생각이다.

영적 가족, 즉 믿음의 친구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매우 소중한 가족이다. 이 영적 가족은 때론

혈연 가족이나 사회적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지역교회의 교우들은 참으로 소중한 영적 가족이다. 우리 크리스천의 행복은 상당 부분 우리가 속한 이 영적 가족과 관련이 있다. 시편 기자는 믿음의 친구들끼리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들었다.”(55:14, 현대인의 성경) 과연 우리는 교우들과 얼마나 재미있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을까? 갈등과 불화 때문에 너무 재미없고 불행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사람은 행복의 주요 원인이지만 동시에 불행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복, 즉 인운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주어진 사람 관계를 잘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저절로 좋아지는 관계란 없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꾸는 일이란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행복한 삶에는 우리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 사랑을 적절히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가족, 친한 친구, 교우라도 상처를 주고,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길 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최북단인 컬크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묻는 현상 공모를 영국의 한 신문사가 했다고 한다.

비행기, 기차, 도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다. 1등으로 뽑힌 답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 그렇다. 행복한 삶은 좋은 동반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사람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닫는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세 가족들—혈연가족, 친구들,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잘 가꾸어나가야 함을, 사람의 복은 사랑의 복이라는 사실을.

### 마음 다이어트



정우성 목사  
남가주평염교회

요즈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는 ‘성인병’이라는 말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운동부족으로 오는 병이 성인병이다.

세트로 오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다. 그 결과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들어오는 환자 대부분이 쓰러지기 전에 식사를 너무 과식했든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과취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식욕을 멈춘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그 식욕이 우리 몸을 점점 망가뜨린다. 그래서 다이어트 열풍이 일어나는 것인데 모르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다이어트다. 마음이 정리가 안되면 몸의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 속에 상처, 불안, 근심 걱정 등이 쌓이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마음은 견줄 수 없는 혼란을 겪는다. 마음 안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차곡 차곡 쌓인다. 우리 마음 안에는 너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7:21-23)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우리 마음을 예수와 감사, 사랑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면 마음의 다이어트가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마음을 다이어트 한다는 말은 하

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도둑이 마음대로 들어와 우리를 해한다. 부부사이, 자녀들, 직장, 교회 등에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의 세가지 후회를 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조금만 더 참을 것을, 마음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화낸 것, 말을 참지 못해 함부로 말해서 평생 고통당할것...등

두 번째는 조금 더 베풀고 살 것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 것을, 좀 더 따뜻한 마음과 말로 할 것을, 너무 인색하게 살았다는 것을 후회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쁨으로 즐기며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시기 질투, 짜증, 불평, 불만, 원망 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천국에 가고 갈 것이 하나도 없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내 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후회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이 깨끗이 씻음받고 선한 열매를 이루어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M3® 세트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제품소개



####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공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노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와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 MEGA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베타,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코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코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홈쇼핑	714.496.7887	토렌스	213.268.0844
시온약국	213.344.9730	LA별몬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로렌하이츠	626.912.5727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곽동원, 진희 선교사 부부의 연해주 사역 현장. 비닐하우스에 심은 꽃씨가 싹을 틔우는 모습(왼쪽부터), 주민들로부터 꽃씨 주문을 받는 곽진희 선교사, 시장에서 팔리는 소담스러운 꽃.

# 연해주 거친 땅에 예수사랑 씨앗 심는다

## 기독교일보 초대석 러시아 선교사 곽동원·진희 집사 부부

미주GMP(세계개척선교회) 소속 러시아 선교사인 곽동원·진희 집사 부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 126:5,6). 가난의 스산함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흘러 과거로 회귀한 느낌마저 드는 러시아 극동의 연해주. 그 척박한 이방에서 곽 선교사 부부는 원예사역을 통해 한많은 가레이스키(고려인)들의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며 그들의 눈물에 자신들의 눈물을 섞어 복음을 파종함으로써 그 어두운 땅을 보시며 오래 울고 계셨던 사랑의 주님을 전하고 있다.

**미국에서 쌓은 30년 원예 전문가 경험 바탕 연해주 고려인들에 농가 소득증대 길 열어줘 모범사례 지정 한국정부 지원금 18만달러 수령 “실내 화초 등 재배 주력 계획” ... 후원 절실**



제3의 고향인 러시아 미하일로프카에서 원예사역을 하고 있는 곽동원·진희 선교사 부부.

30년간 화훼와 조경 사업으로 영근 아메리칸 드림을 수확하면서 평탄하게 살던 이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연해주로 동지를 옮긴 것은 2002년 다녀온 단기선교가 계기였다. “같은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교회에 다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추하게 변해버린 저희의 모습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상상 못할 고난 속에서도 순수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삶의 풍파에 맞서 투쟁하듯 살아가는 고려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 곽 선교사 부부는 연해주를 가슴에 품고 매년 다니면서 고려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등 꿈을 받아시켰다. 5개월간의 선교훈련 후 남가주사랑의교회의 파송을 받아 제3의 고향 미하일로프카로 건너간 것은 2009년. 선교사로 받아 주지 않는 나이인 50대 후반이었으나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지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희가 섬기는 사람들은 1860년대 이래 연해주에서 거주하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크 등으로 강제이주 당해 황무지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고려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백의민족 특유의 인내와 근면성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노동영웅이 되고 자식들을 도시로 유

학 보내는 등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불공에 따른 민족주의 발호로 배척당해 살기 어렵게 되자 일부가 1990년대 중반에 고향인 연해주로 귀환했습니다. 자녀 세대들은 방학 때면 집에 와 부모들을 도왔기에, 폐허가 된 군 막사나 남들이 버리고 떠난 움막에서 살면서 농사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단한 유랑의 역사를 지닌 한핏줄을 섬기러 떠난 곽 선교사 부부가 첫 해에 겪은 것은 자기 무능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었다. “도와주겠다고 갔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국보다 30~40년 뒤진 지역에서는 전문지식도 무력했습니다. 미국처럼 흙피에 전화하면 비료가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똥을 볶아서 거름을 만들어야 하고, 러시아어를 못해 관청에 갈 때도 현지인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몰아치는 겨울 눈보라에 제 목 하나 가누기 어려웠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라곤 전무했습니다.” 이들은 시작하자마자 경험한 ‘바닥’을 우쭐함과 교만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일로 사역을 시작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가 세운 ‘원동문화개발기구’에서 벌이는 고려인 영농지원 사업의 일환이었다. 초기에는 오이, 토마토, 딸기 등 농작물을 심었지만 2012년부터는 서너 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꽃 재배에 전념하고 있다. 한 가정

이 시작한 꽃 농사가 5년새 33가정이 참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주택을 증개축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 사역은 한국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 의해 고려인 지원 모범사례로 본국 정부에 보고돼 3년에 걸쳐 18만달러의 지원금을 받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발전 속도를 볼 때 10년 후면 주택 조정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자를 선정, 특수 비닐하우스에서 정원수 묘목, 실내용 화초, 고소득 작물을 키우도록 돕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식 주택이 딸린 2에이커 규모 영농센터를 10월에 구입할 계획이다. 필요한 자금 중 6만 달러는 확보했으나, 4만 달러가 부족해 후원이 절실하다. 응원군은 3개 한인교회, LA기운실, 믿음의 동지 등 소수다. 미하일로프카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 등 운전거리 4시간(약 250km) 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들의 섬김에는 40여 청년들과의 정기모임, 인도를 맡은 출석교회 구역예배, 자택에서 여는 러시아인 할머니 친교모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 및 구제사역, 경로사역, 아동사역, 연 6,000달러 규모의 장학사역 등으로 현지인들의 마음문을 열어간다.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아 무료 카페 ‘향기나는 숲’을 오픈할 계획도 갖고 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일까. 이들

은 “보내는 선교사와 현지 선교사가 협력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후원이 있어야 하는데 점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간증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고 많은 헌금을 내는지 기술적으로 깨달아가는 일이 이들은 두렵다.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검증 속에 사역하기를 간구한다.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 돈은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정직한 선교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기를 원합니다.” 곽 선교사 부부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다. 예수님의 첫 기적 현장인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사역이 기대되는 이유다. 병식의 어머니와 아무 음식이나 섭취할 수 없는 특수 앨러지를 갖고 태어난 어린 손녀딸을 보기 위해 방미중인 이들의 원예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 icaruskwak.com을 방문하면 된다. 후원 문의: icaruskwak@gmail.com, 714-401-7811

김장섭 전문위원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징: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든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 “기술발전 인간 성품 위협”

## 러셀 무어, 애슬리 매디슨 사태 관련 지적

불륜 조장 사이트라는 비판을 받은 애슬리 매디슨(Ashley Madison)의 회원 명단이 최근 해킹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 미국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의명성과 비도덕성의 세속 문화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했다.



러셀 무어 위원장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공개된 애슬리 매디슨의 계정 가운데 국방부 또는 정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1만 5천여 개였으며, 업무와 연계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어 위원장은 지난 4일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된 ‘원죄 더하기 현대 기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애슬리 매디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추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교회만이 (문화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무어 위원장은 “애슬리 매디슨은 욕망을 기회와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소비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욕구를 위한 끝없는 선택을 약속받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어두운 정욕에도 이와 동일한 풍요로움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 펠링턴의 제1남부침례교회 목사이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침례교신학대학 교수인 존 김슨 목사가, 애슬리 매디슨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이자 기독교인인 조시 더거와 R. C. 스프로울 2세 목사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 여파로 스프로울 목사는 리고니어미니스트리 사역을 중단하고, 1년 동안 강단에 설 수 없게 됐다.

무어 위원장은 “애슬리 매디슨처럼 포르노도 기술에 힘입어 의명성 위에 자신의 제국을 쌓고 있다”며 “포르노와 불륜 조장 서비스는 매춘의 새로운 형태다. 기술적인 유혹은 오래된 죄와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성품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기술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가려질 수 없다’는 비전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매춘은 신체적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이 죄를 짓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성적 비도덕성을 피할 뿐 아니라 그것에서 도망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나쁜 리더의 10가지 특징”

## 의사소통 안 되고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 바보 만든다



척 로리스 박사 ©크리스천포스트

빌리 그래함 선교·전도·교회성장학교 학장 척 로리스 박사는 12일 “나쁜 기독교 교사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기고 글을 통해 올바른 기독교 교사,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로리스 박사는 “교수로 섬기면서 졸업생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나쁜 교사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는 질문을 던져왔고,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특징에 대해 알기 위해 리더들을 살피고, 리더십에 대한 토론도 하고, 관련 책도 읽었다”면서 “나쁜 교사의 특징과 나쁜 리더의 특징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해왔다”면서 그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1.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때때로 이들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읽기를 기대한다. 또는 그들이 자신이 말하지 않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를 원한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 때는 매우 지루하다.
- 2. 다른 사람을 바보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거의 지적한다(배놓지 않고 지적한다). 또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법도 없다. 이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최악의 교사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문제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 3.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솔직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불명확하고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방향을 따르는 데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 4.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교사들과 리더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스템들이 좌절하고 있다. 교사가 리더가 관계 형성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가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순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 5. 열정이 없고 게으르다.**  
그들은 열정이 떨어져 그들의 초점과 에너지를 오래 전에 잃어버렸다. 그들은 새로운 것이 없으며, 그들의 가르침이나 지도가 십여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시늉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속아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6. 교만하다.**  
당신은 이 교만이, 심지어 기독교 단체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 것이다. 이들 교사나 리더들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만 말한다. 때로는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 7. 비판적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인가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다.
- 8.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도 잘 모른다.**  
일부 교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교재를 자신도 잘 모른다. 일부 리더들은 자신도 잘 모르는 영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 9. 자기 하는 일을 즐겨워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루 일과를 아무 기쁨 없이 보낸다는 것이다. 그들의 미소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들의 웃음은 거의 들을 수 없다.
- 10. 공격과 사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리더의 모습과 사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특히 기독교 교사와 리더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 교회 | 신교회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전중회 / 토요일·17와버랜드 크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섬기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b>연제선 담임목사</b></p> <p><b>LA 온하늘교회</b></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b>LA 선교교회</b>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령받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망중에 기뻐하라</p> <p>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10-95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새벽 오전 6:20</p> <p><b>한현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션교회</b>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p> <p><b>한기형 담임목사</b></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E모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p> <p><b>서건오 담임목사</b></p> <p><b>나성서부교회</b> 평안하여 든든히 섬기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한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b>김광삼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령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스듬한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9:00 E모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b>김경달 담임목사</b></p> <p><b>산타모니카한인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s.us</p>
<p>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찬양예배 오후 3: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신현호 담임목사</b></p> <p><b>새하늘 교회</b></p> <p>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b>씨니사이드교회</b>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열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엘에이연합감리교회</b>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b>열매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 (213) 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T. (310) 500-4737 / olympic-church.org</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넌렛 전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b>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b></p> <p><b>요한 선교회</b></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6:00 (토)</p> <p><b>류종길 담임목사</b></p> <p><b>임마누엘선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E모/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인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모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모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민종기 담임목사</b></p> <p><b>충현선교회</b> 블라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b>한마음제자교회</b>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원 담임목사</b></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행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b>김범수 치과</b> General &amp; Cosmetic Dentistry</p> <p><b>Bryan Kim D.M.D.</b></p> <p><b>김범수 치과</b></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교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영아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리침례부예배 오후 12:5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6:0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청년교회 사랑의 나눔예배(매주) 오전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오전 11시(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이침례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장년), EM예배 오전 10:00(장년), KM예배 오후 3:00(장년)  
장어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00,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정영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목요일성령예배 - 저녁 7:45, 구약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곽락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목요일성령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령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호년**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힐로우쉽홀) 오후 12:00(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6:3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고신·고려 역사적 교단 대통합”

40년 만에 총회서 마주한 감회... 함께 은혜 누리자



고려측 총대들이 고신측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고신측은 고려측을 위해 총회 장소 앞자리를 비워 줬다.

예장 고신과 고려가 마침내 역사적 교단 통합을 이뤘다. 약 40년 만에 총회 석상에서 마주한 형제 교단의 총대들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으며 하나됨을 축하했다.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다.

고신과 고려는 15일 오후 3시 각각 고신대 천안캠퍼스와 사랑의교회 안성수 양관에서 제65회 총회를 개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 합의문을 가결했다.

이에 16일 오전 고신측의 환영사절단이 고려측 총회 장소로 찾아가 고려측 총대들과 함께 고신측 총회 장소에 도착해 11시 30분경 통합 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양측은 통합 과정에서 세심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해, 그야말로 교단 통합의 정석과 모범을 보였다.

고려측 총대들이 입장하자 고신측 총대들은 전원 기립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 양측 신상현·원현호 총회장이 통합 합의문을 함께 낭독했고, 선물과 꽃다발을 주고받았다.

신상현 총회장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함으로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법적으로 하나되기는 쉬워도 함께 살아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자”고 밝혔다.

원현호 총회장은 “개혁주의·성경신학 안에서 영광스러운 통합을 함으로써, 한국교회에 큰 획을 긋고 신선한 도전을 주며 정화의 디딤돌을 놓게 됐다”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에베레설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감격과 아름다움이 지속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양측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직전총회장인 김철봉 목사(고신)와 천환 목사(고려)가 인사했다.

김철봉 목사는 “양 교단의 통합을 위해 기도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과 열정과 열망을 주셨고, ‘존중’과 ‘니그러움’이라는 두 단어로 감동을 주셨다”며 “한상동 목사님이 빈손으로 시작한 우리 교단이, 70년 지난 지금 하나님께 총회회관·고신대·복음병원·세계선

교센터 등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제 이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고 했다.

천환 목사는 “1년 동안 고신 측의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하며 신실한 배려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 하시는 모습에 크게 한 수 배웠다”며 “우리는 모두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더 바르게 살고자 했던 몸부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고 했다. 그는 “주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힘들었던 40년이 지나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한마음으로 기쁘게 나아가자”고 했다.

신사참배와 공산주의에 맞선 순교신앙을 한 뿌리로 한 예장 고신과 고려는 안타깝게도 1976년 제26회 총회 시 ‘신자 간의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됐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법정 소송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 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로 믿는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루며 통합에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문은 구체적으로 △통합 시 양 총회의 모든 역사(총회 회기, 교회 역사, 신학교 졸업 기수 등)는 병합되며,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 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노회로 편성한다 △토 양 총회 소속의 목사·선교사·교역자의 신분은 헌법대로 보장하며, 항존직을 비롯한 교회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당)는 가급적 유지 재단 가입을 권장하고, 목회자에게 은급(연금)제도 혜택 및 계속 수확의 기회 등은 양 총회 공히 동등하게 제공한다 △고려신학교 신학원(M.Div 과정)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와 병합하며, 졸업자의 학적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관리하고, 재학생은 신입생으로 입학(특례)하게 한다.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은 새노회에서 운영한다.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와 추후 필요한 사항은 양 총회 통합 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통합을 통해 고신총회는 약 2천 교회 55만 성도 규모의 교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류재광 기자

“예장통합신임총회장 채영남 목사 선출”

야곱같이 고향 떠난 200여 교회 돌아오도록 기도해



신임 총회장 채영남 목사

향 떠난 야곱이 20년만에 돌아온 것처럼, 그들이 다시금 교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채 목사는 ‘한국교회 일체 증진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먼저 타 장로교단과 함께 100주년 연합 기념예배를 드렸다고 밝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과의 관계회복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사업 원리’를 제정·선언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교도소 교정 사역, 경제 양극화 극복을 위한 화해 사업 등을 통한 연합활동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4월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화해의 십자가 날’로 선포하고, 6월 25일을 ‘민족 화해의 날’로 정해 탈북민과 함께 하는 민족화해 캠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 채영남 목사는 총회연금재단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 했다”고 밝히고,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기총·한교연 문제에 대해서도 두 기관 연합의 가교가 되겠다면서 “한국교회를 위한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예장통합 신임총회장 채영남 목사(광주분향교회)가 15일 제100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충북 청주 상당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를 모티브로 한 총회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채영남 목사는 특히 7대 주제사업을 설명했다. 먼저 ‘화해조정과 사면’을 통한 화해사역’에 대해서는 200여 교회가 교단을 떠나 독립교단 혹은 타 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고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대신·백석 대통합”

## 통합이유는... 한국교회 분열 극복위해



14일 라비둘리조트에서 개최된 대신·백석 통합총회는 양 교단의 대통합을 선언했다.

[1면으로부터 계속] 그리고 여러 차례 통합 협상을 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통합을 바라보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의 갈라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왜 굳이 통합을 하면서 교세를 키우려고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고,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이룬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 통합총회장은 “지난 100년 동안 장로교단은 부흥 성장하였고, 한국교회 중심 교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열’이라는 부끄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분열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정신만 있다면 통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연합’은 우리의 사명이고 한국 교회에 모범이 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예상 백석-대신 통합총회 선언문에서도 “통합을 허락하신 이유가 단순히 교단의 생존과 교세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때,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며 통합의 명

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 선교 130년과 광복 7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우리의 통합이 작은 밑알이 되어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분열을 마감하고 새로운 연합과 일치 역사의 시작하는 원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광훈 목사 사회의 통합총회에서는 백석 장종현 목사가 통합총회장으로 추대됐고, 이종승·유중국·이주훈·박근상 목사가 각각 제1·2·3·4 부총회장으로 추대됐다. 백석 이정욱 목사와 대신 홍호수 목사가 사무총장으로 추대됐다.

아울러 통합총회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법, 학생인권조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드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를 막아내고 결혼과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슬람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금융과 문화, 인력, 자본 등 전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에 경계의 뜻을 밝히며, 이슬람의 확산을 막아내고 성도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는 한편, 어떠한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기독교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과제로 삼고, 날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것 등을 실천과제로 선언했다.

이동윤 기자

# “기장 신임 정·부총회장 최부옥·권오륜 목사”

## 새 임원진 구성... 고은영 장로도 부총회장에

최부옥 목사(서울동노회 양무리교회)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신임 총회장에 선출됐다. 또 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했던 권오륜 목사(서울남노회 발음교회)와 고은영 장로(군산노회 군산세광교회)가 선출됐다.



최부옥(왼쪽)·권오륜(오른쪽) 목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찬의 깊은 뜻, 세상 안에서”를 주제로 14일부터 원주 영강교회(담임 서재일 목사)에서 제100회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기장은, 15일 새 임원진 구성을 마쳤고 오는 17일까지 각종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부옥 신임 총회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단의 정체성 확립 및 내부 역량 강화,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뜻을 밝혔다.

특히, 오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장은 이번 총회에서 △서대문 총회회관 건축 △한신대 신대원 운영이사회 구성 △총회 이단 경계 주일 제정 △종교인 납세 △성소수자 목회지침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 “카이캠, 목사안수 대상자 99명 확정”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 장 신상우 목사, 이하 카이캠) 제32회 목사고시 지원자 96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면접과 심층면접이 지난 14일 햇빛트리 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카이캠에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면접과 목사고시, 대면면접, 바른미래목회세우기 세미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이 중 카이캠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대면면접이다. 질문서와 인성검사(MCMI·MMPI)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은 ‘목사가 왜 되려 하는지’, ‘사명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내게 된다.

이날 목사고시 면접위원으로는 신상

우 목사, 최은영 교수(햇빛트리니티 상담센터), 이윤니 교수(햇빛트리니티 상담학), 이필재 목사(갈보리교회 공로), 이종화 목사(새생명교회), 박희철 목사(가정지유회복사역위원장), 최두열 목사(새마음교회), 정홍열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번생 목사(군산교위원장), 김형중 목사(목회국장)가 참여했다.

면접위원들 앞에 선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긴장한 모습으로 질문에 답했다. 이번에도 역시 일부 지원자들은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 ‘너무 독단적이다’, 등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

해의 합격자 5명을 포함해 이날 면접에 통과한 99명은, 오는 10월 19-21일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리는 바른미래목회세우기 세미나에 참석한 후 10월 26일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

김진영 기자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1:30a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목) 5:00am (토요일)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 오전 6:00 분당 **허귀남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요일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심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아예배(GLMC) 주일오후 12:30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HI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인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 7:20 PM(성경 66권씩씩씩성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새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신 그 기쁨과 은사를 누리게 하소서(골 3:10:1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회장 **주혁목**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원**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ä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 (1-9) 오전 11: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얼바인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5(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5:00 **주혁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경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어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아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b>\$100</b>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b>\$100</b>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b>\$100</b>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니움.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유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니 6개월 후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과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씨에라리온

김성림 선교사

“가장 최고의 나  
눔은 ‘복음’이다. 생  
명을 나누어 준 것,  
그것이 복음의 말  
씀이다.”



## 잊혀진 에볼라 고통위에 임하는 교회부흥(하)

에볼라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무슬림이 증가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시킬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 몇 명이 환영인사를 해주었다. 1년 만에 본 얼굴들이라 어찌나 반가운지 “에볼라”도 잊어버리고 안고 악수를 나눴다. 순간 아차 했지만 말이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을 나누어 주고 가져간 쌀도 배급하였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고아들에게도 옷과 학용품도 주고 사랑의 인사를 나눴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간증들을 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 주니 모두 할렐루야를 외친다. 그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죽음과 싸우고 있는 이들이지만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들에게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하고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이들에게는 나눔의 기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기도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모양바 지역에서 사역하는 어거스틴 목사가 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다. 그를 만난 것이 우리들에게도 큰 축복이다.

어거스틴 목사는 아직 자녀가 없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양육하고 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다. 이제 센터가 건립되면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 하다.

오래 전에 구입한 오토바이가 자주 고장이 나 이번에 새 것을 장만하였다. 모양바 지역은 아주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다. 수풀이 우거져 물도 많은 곳이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고립되는 마을도 있다. 그곳에서는 “멘디” 종족이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을 처음 만난 시기는 우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때이다.

그 때는 아는 이들이 없어 그저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라고 하시며 가던 시절이다.

길이 있으면 무작정 가다가 감동이 되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던 시절이라 지금은 아주 다른 상황이었다.

더욱이 종족 말도 할 줄 몰라 그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갔던 시절이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목사다. 그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모양바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거스틴 목사에게 오토바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늘의 마차

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 가난하고 질병으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이다. 복음 오토바이는 모양바 지역에 4개의 교회를 세운 축복의 발이다.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오토바이를 새 것으로 바꿔 주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오토바이다. 이 작은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토바이에 손을 올리고 감사와 안전을 위한 기도를 했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분의 최고의 선물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주신 주님께서는 결국 아들까지 주셨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고전4:7) 하나님은 완벽하게 남김없이 주셨다.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그들이 소유한 것을 나누며 살았다. 가장 최고의 나눔은 “복음”이다. 생명을 나누어 준 것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다. 지금 우리들은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식량과 의복, 그리고 약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떡을 떼며 살고 있다. 함께 있지 않아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다. 이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 자체가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그 감격의 구원과 누리고 있는 사랑을 이들에게도 나누시길 바란다.

이곳에 다시 돌아 오는 길은 결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에볼라”

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로 동역해 주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에볼라”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참 잘 돌아 왔다 싶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나누고 싶은 복음과 사랑도 듬뿍 있으니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을 듯 하다.

아직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다. “에볼라”로 교회가 부흥하긴 했지만 그와 더불어 무슬림의 숫자도 증가 했다. 매일 새벽 틀어대는 “아잔” 소리가 마을을 휩쓸고 있다. 이곳에는 지금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하다. 아직도 듣지 못한 복음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에볼라” 사건을 통하여 더욱 마음이 바빠진다. 다행히 우리를 만나 주님을 영접하여 믿다가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축복이지만 우리의 손길이 모자라 가 보지 못한 마을에서는 많은 영혼이 허망하게 죽어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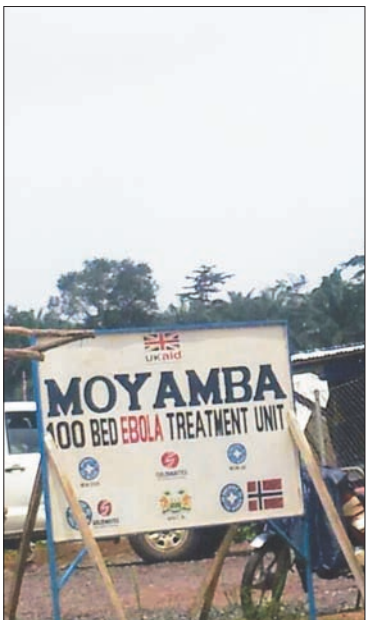
이 우기가 끝나면 이제 “에볼라”도 모두 물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들뜬에 익은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 정글로 들어 가려한다.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린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사랑의 손길과 기도 후원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다.

다음 편지에는 “에볼라” 소식이 아닌 살아남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많이 전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끝>

정리 이영인 기자

웹사이트: [jesusmission7.org](http://jesusmission7.org)  
이메일: [goafrica7@gmail.com](mailto:goafrica7@gmail.com)



[지난호에서 계속]이제는 점차적으로 “에볼라”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마을 간 이동시, 여전히 모두 차에서 내려 손을 씻고 체온을 재야 한다. 아직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완벽한 방역 복을 착용한 병원 관계자들이 먼저 시신을 수습하고 모든 가구와 집기들을 소독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폐쇄를 하는 수고를 거쳐야 하지만 모두 잘 감수하고 있다.

곳곳에 세워진 임시 에볼라 병원도 차츰 폐쇄에 들어가고 있다. 몇몇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이 회복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는다.

아직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마을에 진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우기철이라 길이 막힌 곳도 많다. 오지를 다니는 사역이라서 그런지 더 쉽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부터 하고 있다. 길이 뚫린 마을을 방문하여 쌀을 조금씩 나누어 주고 있고 들어가 지 못하는 마을은 제자들을 통해 쌀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모양바”를 다녀 왔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달라이라마와 라마교(3)

# 밀교 철학, 율법폐기론적 사랑 추구로 사회 타락 우려

이슬람과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를 연구해 온 선교신학자 이동주 소장의, '라마교와 그 수장 달라이라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연재하여 라마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는 달라이라마
- 2. 밀교 철학, 율법폐기론적 사랑 추구로 사회 타락 우려
- 3. 달라이 라마, 무당 깊이 신뢰하고 귀신에 얽매어 있어

3. 밀교 철학의 '합일의 철학'  
탄트라 불교가 무엇이며 왜 타락했지는 '탄트라, 더 없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아래의 설명에서 간파할 수 있다.

"전체(the whole)에는 경계선이 없다. 그대는 전체처럼 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만남과 합일이 가능하다. 텅 비어 있을 때 그대는 경계선 없이 존재한다. 돌연 그대는 전체가 된다. '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대는 전체가 된다. '나'가 존재하면 그대는 추한 예고가 된다.

그러나 '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 전체가 된다. ... 무가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 죽어라! 그러면 신이 된다. 사라져라. 그러면 그대는 전체가 된다.

여기에서 하나의 물방울이 사라지고, 저기에서 거대한 바다가 태어난다. (중략) 거대한 심연 속에 그대 자신을 방치하라. 일단 방치하면 그

대는 심연 자체가 된다. 이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의 심연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이 심연에는 끝이 없다. 무가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유(有)에는 끝이 있다.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무는 영원하다.

마하무드라는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완벽한 오르가즘이다. 존재의 근원으로 녹아드는 것이다. 간혹 수영 같은 것이 느껴지면 나는 수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잠이 찾아오면 나는 잠을 잤다.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났을 뿐 거기에 행위자는 없었다. ...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으며, 수많은 일들이 저절로 일어났다.

마하무드라(mahamudra)는 최후의 경험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마하무드라는 궁극적 경험이다. 마하무드라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전체적인 오르가즘을 뜻한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대는 간혹 상대방 안으로 녹아드는 것을 느낀다. 더 이상 둘이 아니다.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황금의 다리를 놓는다.

내면에서 둘이 사라진다. 하나의 생명 에너지가 두 극단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만이 마하무드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탄트라의 존재는 공(空)이며 비존재이다. 어떤 것(something)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이다.



이동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그것은 무아(無我)이지 자아(自我)가 아니다. 자아는 허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 궁극자와 합일의 신비주의는 인도 베단타(vedanta) 철학 사상과도 병행되고, 또 위와 같은 성적 합일의 초윤리적이고 율법폐기론적인 무아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밀교는 이러한 궁극적 합일의 신비를 연인의 사랑을 통해 실현한다. "그대의 경험을 통해 설명해 보자.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대는 무가 된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대는 무아(無我)가 된다. ... 사랑할 때 그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nobody)'이 되어야 한다. 두 연인이 서로의 편에서 있을 때, 또는 두 개의 무가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럴 때만 만남이 일어난다. 장벽이 무너지고 경계선이 사라진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 이렇게 깊은 사랑의 순간에만 오르가즘이 가능하다. 두 연인이 섹스를 하면서 무아가 되었을 때, 오르가즘이 일어난다. 그들의 존재 전체가 정체성

(identity)를 상실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아니다. 그들은 거대한 무의 심연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일은 환순간에만 일어난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그들은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둘이 사라진다. 마하무드라의 차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마하무드라는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되는 절정의 오르가즘이다.

탄트라에서는 두 연인 사이의 깊은 삼입, 환희에 찬 삼입 또한 '마하무드라'라고 부른다. 탄트라 사원과 책에는 깊은 오르가즘 상태에 든 연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이 궁극적 오르가즘의 상징이다."

위와 같은 무아적 합일의 철학은 아래와 같은 탄트라교의 율법폐기론적 사랑의 추구로 사회 타락의 요소가 되었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노력하면 예고가 강화된다. 노력하는 순간 '나'가 들어온다. 사랑은 노력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그대가 노력한다면, 거기에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사랑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노력하지 말라.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함께 흘러가라. 유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지켜라. 이것이 탄트라의 길이다. 이것이 탄트라의 근본이다. 요가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탄트라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요가는 예고를 지향한다. 마지막에 예고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탄트라는 처음부터 무아(無我)를 지향한다. 요가는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예고를 버려라"고 말한다. 그러나 탄트라는 처음부터...

요가가 끝나는 곳에서 탄트라가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요가의 최정상이 탄트라의 출발점이다. 탄트라는 그대를 궁극의 목적지로 데려간다. 요가는 탄트라를 위해 그대를 준비시킬 수 있다. 그것이 전부다. 궁극적인 것은 노력이 없을 때 온다. 유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때 궁극의 문이 열린다. ... 그대 자신과 싸우지 말라. 유연하게 대처하라. 그대 주변에 인격과 도덕이라는 틀을 만들지 말라. 그대 자신을 너무 계율에 얽어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계율은 속박이 된다.

그대 자신을 감옥에 가두지 말라.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라. 상황과 더불어 움직여라.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응하라. 인격이라는 갑옷을 입고 움직이지 말라. 고정된 태도를 갖지 말라. 얼음처럼 굳어지지 말라.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여라.

항상 유연하게 흘러가라. 자연이 어디로 인도하건 그대로 따라가라. 저항하지 말라. 그대 자신에게 아무 것도 강요하지 말라." (계속)

●이선이 칼럼

# 미래 불안-창 15:1

우리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불안해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한 본성 때문이다.

불안은 평안을 깨뜨리고 삶의 균형을 해친다. 불안을 제어하지 못하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

크로닌(A. J. Cronin) 의사는 인간의 염려 중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40%, 지나간 일이 30%, 건강에 대한 것이 12% 등이고, 해야 할 것은 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염려 중 쓸데없는 것이 92% 인 셈이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 상속자 문제가 염려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으리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무자식 상태였다. 무자식 상황자라는 말

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배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자기의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상속자가 없어 될 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창 15:4)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불



이선이 대표  
듣는마음심리상담센터

안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다. 외부의 환경에서든 내적인 심리에서든 실존적 불안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자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이었다. 혹 누군가의 공격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안전하지 못한 삶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였다.

인간은 불안 때문에 돈, 직위, 유명한 사람 등으로 방패를 삼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방패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실존적인 불안을 멈추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드리는 데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약속하신 후손은 아직 없지만, 가나안에서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며 불안감을 씻어 주신 것이다.

불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발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

리에게 영원히 불안하지 않을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르면 불안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쉬는 것이다.경건한 신앙인도 평안에서 떠나 불안을 계속 갖고 산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반항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안으로 인하여 두통, 고혈압, 피곤,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도들이 주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 장수한의원

# 축 확장 이 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뺀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한방 소아과**: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방 및 보약    기타: 비만치료

**이런분께....**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웰 튜닝, 마음 조율하기

정광하 | 비전북 | 256쪽

‘웰 튜닝’은 한 인간이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다름이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자라 온 환경과 문화가, 기질이나 연령, 성별이 다른데도,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려는 게 문제라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출발하면, 마음 조율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희망과 용기를 준다.



####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네

코르넬리스 프롱크 | 그책의사람들 | 528쪽

개혁주의 신학자 코르넬리스 (닐) 프롱크(Cornelis Neil Pronk) 청교도개혁 신학교 교수의 목회와 역사, 현대 신학 주제에 대한 27편의 단상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교단 월간지인 ‘메신저(Messenger)’의 편집자로서 썼던 프롱크 교수의 글들 중 27가지 주제를 선별한 것이다. 각 장 마지막에는 ‘더 깊은 공부와 나눔을 위한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웨슬리신학연구소 | 아바서원 | 400쪽

웨슬리신학연구소가 최근 신학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관계적 삼위일체론’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이 철저히 성서에 기반을 둔 기독교 전통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대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학이 될 때,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형성할 수 있는 생명력 강한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김하중 | 두란노 | 356쪽

방황하는 이 시대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잠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에게 듣는 현장 멘토링이다. 역대 최장수 주중대사를 지낸 전 통일부장관 김하중 장로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 저자는 이 시대 청년들이 한국 기독교의 미래요, 장차 통일한국시대와 동북아 중심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기에 그들 중 극히 일부라도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 REVIEW

# “셰퍼드 콘퍼런스 중 ‘설교’ 주제 강연들만 모은 것”

### 존 맥아더, R. C. 스프로울, 알버트 몰러가 말하는 “설교”

지난 1980년 159명으로 시작돼 35년이 지난 현재 매년 봄마다 수 천 명이 참석하는, 미국 최대의 목회자 세미나 ‘셰퍼드 콘퍼런스’에서 ‘설교’를 주제로 강연했던 내용을 모은 책이다.

그는 목회자들에게 “우리는 언제 설교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항상 설교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명을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맥아더 목사는 ‘시대가 위험하므로’, ‘우리의 선배들이 이에 헌신했으므로’, ‘성경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육체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 말한다.

리고니아 미니스트리 설립자이자 대표인 R. C. 스프로울 박사는 ‘설교와 하나님의 주권(롬 9:10-16, 2004)’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알기 바란다”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통치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선악을 결정하시는 절대적 권위가 있으시며, 구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갖고 계신다”고 전한다.

남침례신학교 총장인 알버트 몰러 박사는 ‘참된 복음의 목회자(행 18:24-28, 2011)’라는 제목 아래 ‘아블로’를 목회자의 귀감으로 소개



목회자는 설교자다  
존 맥아더 외  
생명의말씀사 | 304쪽

한다. 몰러 박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칭찬했던 아블로의 여섯 가지 덕목을 토대로, ‘참된 목회자

의 특징’을 가린다. 이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신실하게 말하고 가르치면서, 담대히 말했다는 것이다.

나인마크스 미니스트리 대표인 마크 데버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겔 1:28-3:15, 2002)’에서 “육적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교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면, 사람들은 때로 거절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역 중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한없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다.

서문에서 존 맥아더 목사는 “처음부터 콘퍼런스의 특징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수백 편의 설교를 전하는 것이었다”며 “하나님 말씀에 서려 있는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지금도 처음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위에 소개된 목회자들의 위대한 크리스토퍼 로우시침례교회 스티븐 J. 로슨, 칸트리사이드 바이블 교회 톰 페닝턴, 미션로드 바이블 교회 릭 윌랜드, 퍼스트 펀더멘탈 바이블 교회 알렉스 몬도야 등이 기고한 총 12편의 글이 들어 있다. 이대웅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리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영혼의 꽃씨

을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후, 더 강력해진 “악마들”

앤드류 팔리  
그놈들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하다



스크루테이프 비밀 보고서  
앤드류 팔리  
터치북스 | 196쪽

지난 2013년 11월 22일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 S. 루이스 50주기를 맞아 그의 '정본 클래식'을 출간 중인 흥성사가 개최한 기념행사에서는, '내가 써 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공모전이 진행됐다. 루이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1942년)>를, '지금 이곳'에서의 그것으로 바꿔 써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갖는 통찰력과 변박이는 재치, 그리고 역설 덕분이다.

이 작품은 경험 많고 노회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쫓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 쓴 31통의 편지로, 신앙생활의 동기와 맹점들을 거울을 보듯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흥성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인간 세상에 누설된 지 70년 후, 현대

담긴 문서를 긴급 입수해 '번역·공개'했다.

서문 격의 '어렵사리 입수한 문서를 번역하며'에서, 팔리는 비장한(?) 문체로 "이 문서에서 '(구원) 사역(the Work)', '그 자(the One-그리스도)', '새 생명(the Life)', '성령(the Ghost)'과 같은 몇몇 고유한 표현은 악마들이 일부러 그 의미를 축소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면서 시작부터 몸집을 유도한다. 여기서도 우리의 말 한 마디, '단어 선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다.

악마들의 주요 전략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일 것이다. '비밀 보고서'에 공개된 악마들의 수많은 지침들 중 하나만 소개한다. "환자(그리스도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만들어라.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진리도 보지 못하도록 주의를 돌려라. 보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구원은 절대,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

이대웅 기자

##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래리 오스본  
두란노 | 231쪽

결자였던 바벨론에 사는 동안 끝까지 견지했던 세 가지 품성에 주목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말한다.

래리 오스본이 이 책에서 다루는 다니엘의 세 품성은 소망과 겸손, 지혜다. '성경적 소망'은 세상에 맞설 용기를 주고, '성경적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게 하며, '성경적 지혜'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한다.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실제로 이 품성을 살아 낼 때, 이 용어들은 성경책 속에 박제된 진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실재하는 능력이 된다.

### ■ 내생존에서 번성으로!

매일매일이 전쟁 같다. 교계에도 민감한 핫이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양 극단의 중간 경계선에서, 이 사안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안에는 저 노선을 선택하라고 일일이 기준점을 제시하며 명쾌한 정답을 달아주기를 이 책에서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저자조차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한 모든 선택과 결정이 100 퍼센트 옳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 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니엘이 걸어난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걱정, 낙심을 떨쳐 내자. 더는 아등바등 살아남는(surviving) 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예병으로서 번성(thriving)하자.

지은이 래리 오스본(Larry Osborn)은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10대 교회 중 하나로 꼽히는 노스코스트교회(캘리포니아 주 비스타 소재)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현재 주일 예배에 만 명가량의 성도가 출석하는 멀티사이트 교회로 성장했다.

래리 오스본 목사는 목회 활동 외에도 크리스천 리더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돕는 리더십 컨설팅의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고 있다.

이영인 기자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  
예수 믿으면 부자되나?

##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철환  
생명의말씀사 | 232쪽

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겐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담담히 적어 내려간다.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이아말로 가장 큰 교만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가득한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 용감히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예수님을 통해 복(福)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철환 작가가 직접 한뼘 한뼘 그림을 그리고 글로 적어 내려간 이 책은 예수를 모르는, 그리고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다.

그들의 질문, "예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등의 이야기에 저자는 답한다.

예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할 수 있는 내가, 덜 타락하는 것.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다시금 나를 돌이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담담히 들려준다.

눈앞의 결과만 보고 행복과 불행에 기대하는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인지를 알려주는 이 책은 예수를 모르는,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해 용감히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신앙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질문일 것이다. <연탄길>이라는 대형 베스트셀러로 430만 독자들을 울리고 웃게 했던 이철환 작가 또한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책을 시작한다.

그는 <연탄길>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인생의 행복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한 이명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생의 밑바닥으로 치닫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섯 걸음도 채 걸을 수 없었던 어지러움, 고음의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를 24시간 들어야 했던 극심한 이명 등 자살충동까지 불러일으킬만한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서 그는 절망과 희망을 오가며 신음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절대자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고백한다. "하나님 밖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인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남가주 웨슬리언들의 추석 대축제

# 제9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제

**남가주벨엘교회**  
담임목사 오병익 | 지휘: 박정수

**월셔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황기호 | 지휘: 장상근

**참가교회** LA연합감리교회, 구세군교회, 나사렛연합찬양대, 나성동산교회, 로스펠리즈교회, 셋별선교회, 유니온교회, 한빛성결교회

**일시:** 2015년 9월 27일(주일) 저녁 6시  
**장소:** 월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 LA, CA 90010 Tel. (323)931-9133

**주최:** 미주웨슬리언연합회(회장 김성대 목사) | **주관:** 크리스천 위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







## Remembering and Passing On Where We Come From

###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IX: The Intersection of Culture and Faith

BY RACHAEL LEE

A major aspect that must not be left out in discussions regarding the Asian American home or church context is that of the culture and history of the ethnic group, according to Rev. Dr. Young Lee Hertig.

Hertig is one who has immersed herself in the intersection of culture and faith in multiple fields. She earned her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ere she also worked as a professor of cross cultural ministry for a period. She currently teaches at Azusa Pacific University's Global Studies and Sociology Department. Hertig has also explored and spread awareness of culture's influence on faith in the non-profit realm, as she is the executive director at the Institute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and the founder of Asian American Women on Leadership.

Though her current pursuit is that of cross-cultural engagement, particularly between African and Asian American Christians, Hertig's focus for a period had been the intergenerational dynamic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ut according to Hertig, what she experienced in the 1980s and 1990s in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s largely what is still experienced today.

Hertig first began reaching out to young Korean Americans and their parents when she came to Los Angeles from the Midwest in 1981. After marrying her husband, Paul Hertig, the two partnered together in the effort to build bridges of reconciliation betwee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s from 1983 to 1997 in two churche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mostly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We played revised 'newly weds' games, like having the student and the parent sit with their backs to each other and having them answer questions about each other," Hertig recalled. "What does my son want to major in college?" for example. And they would both raise their answers at the same time. The father would raise up 'law,' and the son would put up 'animation,' and we would laugh. We would ask things like, 'What's your mother's favorite make up,' or 'Which university would you like your child to attend,' things

like that."

Games like the one mentioned served as light-hearted channels through which to express honest thoughts, she explained.

"We were almost like surrogate parents," she added. "We would even go to their school events sometimes when their parents were busy, and Paul would throw footballs with them. We took them broomballing and tried to think of creative ways to connect."

She recorded the stories that emerged from these meetings in her book, *Cultural Tug of War: The Korean Immigrant Family and Church in Transition*, which deals with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tensions that may arise in the Korean immigrant home and church contexts.

"People are telling me they still read it and say that it's totally relevant," she said. "But I want it to be irrelevant now. That research was done in the 80s and I wrote it up in the 90s. It's 2015, and people are saying the same old things. That makes me sad, not happy."

Indeed, the issue has been the subject of discourse among pastors over many years. Yet many pastors say they still experience intergenerational tensions in their Korean immigrant churches and are still discussing what may be the best model that Korean Americans should pursue.

For Hertig, one significant piece in the puzzle that many Korean American leaders and pastors fail to put together when considering church models, church leadership, or styles of preaching is the Korean culture and history.

"If you want to have an independent church, for example, you have to think, what are you losing in doing that?" Hertig posed. She referred to a Chinese church she visited in San Francisco in which there were still services in three languages -- English, Mandarin, and Cantonese -- even while many members in the English ministry "had gray hair."

"Apostle Paul is able to say, 'I was born in Tarsus,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and I'm of the people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studied under Gamaliel -- if you can name all of those characteristics of where you come from, and who you are, then go for it -- independence, multi-cultural church, whatever. But when you don't



Rev. Dr. Young Lee Hertig, a professor at Azusa Pacific University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shared her thoughts on the role of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faith.

even know where you're from -- the Benjamin tribe or which tribe -- don't do it for the sake of avoiding conflict," Hertig continued.

"Conflict will be there with you where you are as long as you're breathing -- just because you are not with first gen, does not mean you will not have conflict. You'll still run into corporate culture, or micro-managing pastoral staff. You'll have conflicts or problems, just with different people."

"But when you know where you come from, then you know what you want to discard," she added. "And when you are anchored, then you are like a tree deeply rooted, so that when the wind blows and the rain comes, you will stand. If you are not anchored, then you're just following fads, and that's what I'm concerned about."

Hertig added that there is much "Korean-ness" in even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but that many may not know how to verbalize those characteristics due to a lack of knowledge of the Korean culture.

"For example, domestic violence in Korean American homes -- it's all submerged in history and operates out of the subconscious," Hertig said.

"When you understand, ah this must be from Korean war trauma, then you can put language to describe it," she added. "A lot of conflict comes from unresolved and

unprocessed trauma from Korea's history. And as second and third generation, you have no way of understanding your parents from the context of their history and memories."

To bridge the gap between generations, Hertig says, there is no quick fix, but a long-term process of what she calls the "3 Ts" -- transcribing, translating, and transmitting -- of the culture must be carried out inter-generationally. The younger generation must continue to learn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translate that into their own lives, and pass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This is the reason ISAAC exists, Hertig says. Church "preaches Jesus in a cultural vacuum," while seminaries teach "nothing but butter and bread," forcing Asian American pastors to "all of a sudden cook rice on the job," she explained.

"We do not have an Asian American think tank, or there's only individual scattered ones," she said. "Pastors want quick fix models and programs, but the long-term perspective is missing."

"There's no one sustainable bridge right now -- people are still building bridges. But the people who need to walk on the bridge are looking elsewhere. They wanna fly rather than walk on the bridge, or construct the bridge together. They are looking for an airplane. That's how I feel."

## What's Happening in SoCal?

### Events coming up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September 17 and 18:** The Korean Resource Center will be hosting voter registration events on these two evenings to promote National Voter Registration Day, which is on September 22. Those who attend can receive help in registering to vote, and ask questions regarding the process and implications of registering. The event on the 17th will take place in KRC's Los Angeles office, while the event on the 18th will take place in the KRC's Buena Park office. To reserve a time and spot, call (323) 937-3718 with the extension #4 for the Los Angeles office, or (714) 869-7624 for the Buena Park office.

**September 19:** Two events are happening on Saturday.

Open Bank's charity foundation, the Open Stewardship Foundation, is hosting a non-profit organization fair, in which representatives of 20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based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will give information on their work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volunteering. Organizations related to caring for those with disabilities, family counseling, community awareness and service, low-income neighborhoods, and overseas work will be represented. Compassion International,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 Korean Resource Center, and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are among those which will be represented. From 10 AM to 3 PM at Good Samaritan Hospital's Moseley-Salvatori Conference Center.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will be hosting its 14th annual homeownership fair. For those with low income or bad credit, homeownership may seem like a far-off impossibility, but banks offer certain programs and plans for specific types of people, including those with low income or bad credit. Several banks will be represented at the fair, including U.S. Bank, BBCN Bank, Bank of the West, Union Bank, and Habitat for Humanity. Representatives will explain the different plans that they offer. From 9 AM to 1 PM at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September 20:**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MIU), a university in Ulaanbaatar in which all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will be having a Vision Night, sharing testimonies of how God has been moving through the school. The school has some 1,300 students and faculty.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nd some staff will be present at the event to answer questions and offer more information regarding mission opportunities. From 5 to 6 PM at Oriental Mission Church Vision Center.

**September 26:** Hundreds of prayer vigils will be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on behalf of Pastor Saeed Abedini, the Iranian American pastor who is currently imprisoned in Iran for his faith, and of all persecuted Christians. Those who are interested can join at the nearest prayer vigil location, or by phone through a 24-hour prayer conference call at (712) 775-7035 with the access code, 281207#. The call is from 9 PM EST on September 26 to 8 PM EST on September 27. Several prayer vigils are taking place in Southern California, including in Fullerton, Buena Park, Compton, Corona, Costa Mesa, Diamond Bar, Irvine, Laguna Beach, Norwalk, Rancho Cucamonga, Riverside, San Diego, and Van Nuys. Exact locations and the times (which vary depending on location) can be found online at [beheardproject.com/prayer-vigil/saeed](http://beheardproject.com/prayer-vigil/saeed).

## Good Shepherd Decides to Give Up Current Church Property

BY JUNHYEONG KIM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ECO decided to give up its church property at Rowland Heights worth \$635,000 and to purchase and move into a new church building in Chino Hills. The church was originally a part of the PCUSA (Presbyterian Church, U.S.A.) but recently left the denomination to join the ECO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due to disagreements with the PCUSA's acceptance of same-sex marriages.

This church, which is a part of the San Gabriel Presbytery, was following the presbytery's Gracious Dismissal Policy (GDP) to be dismissed, and held a congregational vote in March of 2014 with the presbytery's agreement. 91 percent of the congregation voted to be dismissed from the congregation. However, the presbytery ultimately did not accept the vote as valid and revised the GDP, placing the church's dismissal process on hold. The church held another congregational vote a year later, at which point 95 percent voted to leave the denomination, and that majority left to the ECO thereafter. The San Gabriel Presbytery and the congregational minority that remained in the denomination the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ECO congregation on July 9 with the Los Angeles Superior Court, asserting that they were unlawfully using the church property.

Reverend Tae Hyung Ko, the

senior pastor of the ECO congregation, said before the congregation on Sunday that the church will give up the property and move into a new building.

"I wrestled with how we can best give glory to God throughout this process," Ko said. "I wanted a win-win situation for both us who want to leave the denomination, and those who want to stay in the PCUSA, and suggested giving \$1.28 million in offering to the presbytery instead of giving up the property. But they responded differently."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y are you giving up the property that you have been defending up until now?" Ko said, "Unlike the misunderstandings of many people, we weren't trying to keep the property. We wanted to converse as fellow Christians, and wanted to find a way that the minority group that wants to remain in the PCUSA would also be able to flourish. But if we go into civil court, it just becomes a fight between Christians, so we decided to give up the property."

This new church property is currently owned by The Wesleyan Church, and is worth some \$20 million. It was previously used by another Korean congregation -- Crossroads Korean Church. Good Shepherd will be purchasing it for \$13 million. The property, which was built six years ago, stands on a four-acre plot of land, and is some 40,000 square feet in size. 500 people can worship together i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held two congregational votes -- one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bytery in March of 2014, and another in March 2015. (Photo courtesy of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the sanctuary, and there is enough parking space for 160 cars.

"We didn't immediately have a location where all 1,000 of us could worship together at the same time," Ko said regarding the decision. "But the session decided that we didn't want to fight in civil court, and decided to give up the property. Since then, we started looking into schools, warehouses, and all other possible locations. And then a completely unexpected road opened up."

Good Shepherd currently began the payment process, and a congregational meeting will be held on Sunday regarding the members' thoughts on the move.

"On September 13, we had an open house event at the new building in Chino Hills, and more than 300 church members came, and they showed a lot of support and approval," Ko said.

Meanwhile, an increasing amount of Korean churches have expressed that they would leave the PCUSA even if they have to give up their church properties. Zion Presbyterian Church of the Sacramento Presbytery recently decided to be dismissed from the denomination even if they have to give up their property worth \$3 million, and Capital Korean Church of the same presbytery also said the congregation and its leaders are discussing leaving the denomination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y also may lose their property.

Good Shepherd was one of the largest Korean churches in the PCUSA, and Ko also wa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As a result, the church's decision this time around will likely be a significant influence to other Korean churches.



나눔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눔을 체험하고, 나눔을 배울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비영리단체 박람회

## Non-Profit Organization Fair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수익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커뮤니티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을 초청해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행사인 Non-Profit Organization Fair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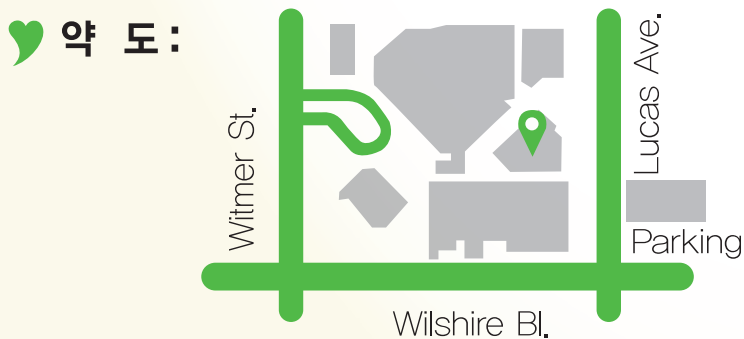
"Love of Sharing"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비영리단체들을 이해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치고 함께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행복한 웃음과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일 시 :** 2015년 9월 19일(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 특별 강연 및 공연  
오후 12시 ~ 오후 3시 : 비영리단체 박람회
- ♥ **장 소 :** Good Samaritan Hospital  
Moseley-Salvatori Conference Center  
637 S. Lucas Avenue, Los Angeles, CA 90017
- ♥ **문 의 :** (213) 593-4885
- ♥ **주 최 :** 오픈청지기재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 **특별 강연**    **공연**

- Young Kim 주 하원의원
- 최홍주 목사
- God's Image



- 참가단체 :**
- America Wheat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밀알선교단)
  -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재미한인직업교육센터)
  - Circle of Friends in Love
  - Compassion
  - Good Neighbors
  -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한미가정상담소)
  - Han-Schneider Int'l Children's Foundation
  - Home on the Green Pastures (푸른 초장의 집)
  -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비전시각장애인센터)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한인가정상담소)
  -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한미특수교육센터)
  - Korean Community Services (코리아안복지센터)
  - Korean Resource Center (민족학교)
  -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 Love In Music
  -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정신건강가족미션)
  -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의의나무 오병이어)
  -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shalom장애인선교회)
  - Somang Society (소망소사이어티)
  - The Well Mission (울타리선교회)

- ♥ **후 원 :** openbank  오랜 역사와 전통의 자신감- Good Samaritan Hospital
- ♥ **협 찬 :** 북창동순두부, CGV, R&M Pacific Rim, Zion Market, Wi Spa, Key Company, Paris Baguette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와 간단한 점심 그리고 다양한 경품도 함께 준비됩니다. 오전 행사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경품의 기회를 드립니다.